

서울역세권 100곳 용적률 200%→700% 상향

‘국토계획 이용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구로관내 역세권 많아 몇 곳이 포함될지 기대



서울지하철 인근 100곳의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하면 역세권 복합용도 계획에 따라 용적률이 종전 200~250%에서 최대 700%로 상향된다. <사진은 구로2동 구로역 역세권 일대 준공업 지역>

‘변창흠표’ 역세권 고밀 개발을 위한 ‘판’이 깔렸다.

서울지하철 인근 100곳의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하면 역세권 복합용도 계획에 따라 용적률이 종전 200~250%에서 최대 700%로 완화된다.

일조권, 채광 등을 이유로 제한했던 아파트 높이 규제도 2배 완화돼 고층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

과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8·4 대책의 후속 작업으로 역세권 고밀 개발을 위한 용적률 완화를 핵심으로 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서울 307곳에 달하는 지하철역 인근 역세권 고밀 개발을 공급대책의 핵심으로 꼽은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이 주택공급의 ‘물꼬’를 튼 셈이다.

구로관내는 구로역·신도림역·남구로역 등 1·2·7호선 등 역세권이 많아 몇 곳이 포함될지 기대하고 있다.

현행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

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은 가능하다.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은 현행법상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도 용적률이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돼 고밀 개발엔 한계가 있다.

서울시 철도 역사의 약 33%에 해당하는 100여개는 일반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 서울시 조례 기준으론 2종 일반주거는 용적률이 200%고 3종 일반주거도 250%에 그친다. 늘어나는 용적률 일부를 기부하는 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더라도 용적률이 400~500%까지만 가능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이 포함되며, 이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하면 용적률은 최대 700%까지 가능해진다. 경우에 따라선 용적률이 200%에서 700%로 3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용적률을 높여 고층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일조권 규제는 더욱 완화한다. 원래 아파트 높이는 건축법상 경계선과 아파트 간 거리의 4배 이내로 제한된다.

〈김유권 기자〉
(2면으로 계속)

신임 제34대 임경우 구로경찰서장 취임

경찰청은 지난 20일 구로경찰서장에 임경우(5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을 발령하는 등 총경급 43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임경우 경찰서장은 지난 25일 오후 3시 4층 강당에서 과장·일선경찰관 등 20여명의 간부직원들과 간담회 형식으로 취임식을 가졌다.

임 서장은 대구 심인고와 연세대 대학원(법학과 석사)과 경찰대 8기로 1992년 경찰청 경무과에 경위로 입관,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장, 경찰청 수사기획계장, 경북 김천경찰서장, 경찰청 수사지원지원담당관,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했다.

한편 경찰청은 자치사무 분리와 관련 경찰청에 신설된 자치경찰담당관에 유승렬 서울 서대문서장을,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에는 임병숙 서울 광진서장이 맡게됐다.

또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은 김병기 경찰청 대테러과장, 검찰담당관은 어윤빈 경기북부 고양서



임경우 구로경찰서장

장, 감사담당관은 김호승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 홍보담당관은 김동권 서울 용산서장이 각각 전보됐다.

이번 전보 인사에서 서울 지역 경찰서장 총 31명 중 23명이 교체됐다.

중부경찰서장은 류미진

경찰청 경찰개혁점검팀장, 종로서장은 이규환 서울청 2기동대장, 남대문 서장은 주진우 서울청 22 경찰경호대장, 서대문서장은 강기택 서울청 경무기획과 치안지도관이 전보됐다.

한편 전임 이병귀 구로경찰서장은 서울청 사이버수사과장으로, 유운상 전전 서장은 인천삼산경찰서장으로, 광범우 전전전 서장은 서울청 홍보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총경 인사는 근무성적과 경력평점, 지휘관 추천과 직무수행 능력 등을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인사기준에는 개인의 전문성, 희망, 직위의 특수성 등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서울오늘신문

서울오늘신문을 검색 하시면 많은 기사를 보실수 있습니다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www.songlimga.com

함께 있어 좋은 날엔 더 좋은 곳에

사랑하는 가족과 맛있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공간

정성 그리고 맛
음식점의 성패는 고객에 대한 마음가짐, 인생의 레시피는 '사람과 함께 하는 여정'

정직 그리고 멋
진심이라는 빛과 물을 줄 때 마음은 비로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다

성실의 향기
소나무도 5년이 되어 뿌리를 내리듯, 기다림을 통한 '행복한 향기'를 나누는 사람

풍미가 담긴 肉의 名家

송림가 예약문의 02.2066.6000

정통의 맛을 담은 宗食 名家

실크로드 예약문의 02.2066.6100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 “서울시장 출마” 선언

26일 여의도 중기회관에서 “서울시 대전환” 공약 발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전 더불어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4선)이 지난 26일 ‘4·7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전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서울시 대전환’을 이끌어 G7 글로벌 디지털경제 수도로 발돋움하겠다는 내용의 핵심 공약도 발표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시민보고’ 형식의 간담회를 열어 “지금부터 서울시민과 함께 이 엄중한 코로나의 겨울을 건너 새로운 서울의 봄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시 공간(재개발·재건축포함) ▷디지털 경제 ▷교육·돌봄 대전환 ▷맞춤형 복지 ▷보건·헬스케어 등 ‘서울시 대전환 구상’을 내놓으면서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면 시민의 삶이 바뀌는 대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감소와 주거불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시민보고’ 형식의 간담회를 열어 오는 ‘4.7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청년 일자리 감소, 저출산 현상을 당면 과제로 꼽았다. 이어 ‘서울시 대전환’을 통해 안전하고 공정하고 따뜻한 서울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전 장관은 이번 출마 보고회에서 ‘서울시 대전환’ 첫번째 시리즈로 ‘21분 컴팩트 도시’를 구상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여의도를 예를 들면서 “앞으로 5년 이내에 21개의 서울 컴팩트 엡커 다핵 분산도시를 만들어 코로나 이후 안정과 공정이 보장되는 새로운

서울을 만들겠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대안 없는 ‘분노와 불만’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작은 위안과 희망의 길을 열겠다. ‘공감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라면서 “다양한 다핵분산도시로 살맛나는 서울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로써 같은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의원과 2018년 이후 3년만에 리턴매치가 확정됐다. <김유권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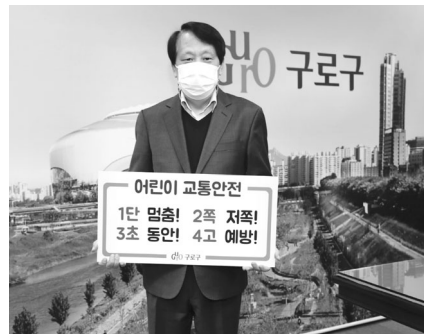
이성 구청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이성 구청장이 지난 22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안전팔호 포즈’를 취하고 촬영한 사진을 SNS에 게시한 뒤 다음 참가자 3명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의 지명을 받은 이성 구청장은 이날 ‘1(일)단 멈춤, 2(이)쪽 저쪽, 3초 동안, 4(사)고 예방’이라는 피켓을 들고



이성 구청장이 지난 22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

이성 구청장은 다음 주자로 박동웅 구로구의회 의장, 장인홍 서울시의회 의원, 황규복 서울시의회 의원을 지목했다. <김유권 기자>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 기준 안내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이하 ‘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지역구국회의원 등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른 선거운동 허용 범위가 규정된 운용기준을 안내하여,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보궐선거 등에서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육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하거나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에서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사례〉

▲육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

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도로변·광장·골터·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비당원 참여 당내경선에서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하거나,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구로구선거관위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기존의 법규정에서 제한·금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문의 사항은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02-3281-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 사이트(<http://law.nec.go.kr>)와 모바일 웹(선거법규포털)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유권 기자>

조미향·박종여 구의원, 대법원에 상고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로구의회 조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신도림동-구로5동)과 박종여 의원(국민의힘 구로1-2동)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 선고에 불복, 상고해 최종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5일 오후 2시 제404호 법정에서 성수제 재판장은 “1심의 판결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났다고 볼수 없어 1심 형량을 유지, 항소를 기각한다”며 “벌금 200만원의 원심

형량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본지 859호 1면 보도〉

또 이 사건과 관련 1심에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10만원을 선고받고 2심에서 항소를 기각당한 B신문(부천 인터넷신문)장 모 대표도 대법에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 두 구의원의 의원직 유지여부는 앞으로 대법원의 판결에 달렸다.

서초동에 사무실을 둔 판사 출신 변 모(68) 변호사는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1-2심이 같은 형량이고 큰 이슈가 없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은 3~4개월이면 대부분

종료 된다”고 밝혔다.

대법에 상고한 조.박 두 의원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 날 때까지 의정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두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6월 1심인 서울남부지법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직자가 선거법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채홍길 기자>

서울역세권 100곳 용적률 200%→700% 상향

〈1면에서 계속〉

아울러 아파트 동과 동 사이 간격의 2배 이내로만 높이를 높일 수 있다. 이 같은 높이제한은 경계선 거리의 8배, 동 거래의 4배 이내로 풀린다.

규제 완화 대가로는 올라가는 토지가치의 상승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해야 한다. 현행 서울시 조례인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에서는 늘어난 용적률의 50%가량을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령에선 100% 이내로 규정했다.

다만 용적률 700%가 가능한 역세권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확대할지는 서울시가 조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운영 기준으론 승강장으로부터 250m 이내이며 청년주택에 한해 내년까지 350m로 풀려 있다.

변 장관은 역세권 개발을 위한 범위를 500m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하철역과 역 사이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500m로 넓히면 서울 면적의 절반이 역세권에 해당할 수 있다. 역세권 고밀 개발은 4월 말 이후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1월말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3개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이다. 시행 전까지 서울시 등 지자체가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김유권 기자>

주간

구로오늘신문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5길 51
한성상가 B동 325호
전화 : 02)830-0905
메일 : news121@empas.com

홈페이지 : <http://gurotoday.com> 다음카페 구로오늘신문

회장 : 유희상 발행인 : 김유권
주간 : 한만수 편집국장 : 채홍길
등록번호 : 서울 다-5105
구독 / 광고문의 010-9096-1144

구독료 : 월 5,000원 : 연 50,000원
기사제보 : 02)830-0905
계좌번호 : 우리은행 예금주 김유권
1002-347-55347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 합니다

대한민국 지난해 인구 전년比 2만 383명 감소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추월하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면서 '인구절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소비가 줄면서 경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영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저출산 문제는 청년층의 고용난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사회를 안정화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출생보다 사망이 늘어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4일 발표한 '2020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상 인구 증가율이 전년 대비 2만838명 감소한 5182만9023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출생자는 27만5815명으로, 3만2882명 줄어든 반면 사망자 수는 30만7764명으로 9269명 늘어 사상 첫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 인구통계상 인구 감소가 확인된 것은 1962년 주민등록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사망자 수가 증가한 영향도 있지만,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저출산 기조는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출생률은 지난 2017년 처음 40만명 아래로 떨어진 후 매년 줄어들어 3년 만인 지난해 30만명 선까지 주저앉았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의 수 '합계출산율'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9년 0.92명, 지난해는 1분기 0.9명, 2·3분기 0.84명 등 계속해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유엔(UN) 인구기금에 따르면, 세계 평균 합계출산율은 2.4명으로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없다. 한국은행은 오는 2022년에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40년 뒤에 반토막 대한민국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40년 뒤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반토막 대한민국'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경연은 지난해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2060년 인구는 2500만명으로, 생산가능인구는 48.1%,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8.7%, 학령인구(6~21세)는 42.8%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1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는 0.22명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추월하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면서 '인구절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소비가 줄면서 경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영역에 악영향을 미칠 것 이란 분석이다. 저출산 문제는 청년층의 고용난 문제와 연관되어 있어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0.98명으로 늘어나, 미래세대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한경연은 예상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면서 '인구 절벽' 문제로 인해 국내 경제의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현재의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가 유지된다면 206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5%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배적이다. 아동 수당 지급은 단발성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출산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등 삶의 질 개선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구 감소는 국부(國富) 감소 의미

전문가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청년층의 고용 충격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사회를 안정화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서 "인구는 국가의 중요한 노동

출생보다 사망자 늘어... 사상 첫 '데드크로스' 발생 출산율 세계 꼴찌... 40년 후 대한민국 인구 '반토막' 청년층 취업·주거문제 등 대책 뒤따라야 저출산 해결 구로구 올해부터 첫째아도 출산 장려금 20만원 지급

국내총생산(GDP)이 줄어들면서 국가채무 비율은 81.1%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2015년 첫 발표 당시 전망치(62.4%)보다 18.7% 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저출산·고령화대책 총 169조원 투입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 총 169조원의 재정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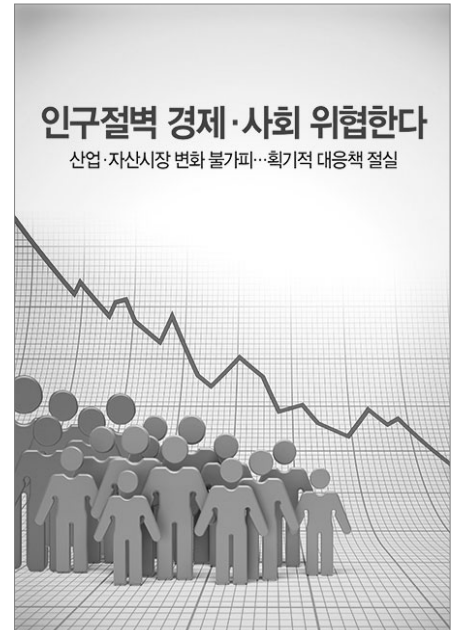
주요 정책으로는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2022년부터 30만원(2025년까지 5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지급하는 영아 수당 신설 ▲출산시 200만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상한 확대 ▲육아 휴직 급여 전면 개편 등 현금성 지원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같은 현금성 지원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분석이

력이고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의 감소는 곧 국부(國富)의 감소를 의미한다"라며 "인구가 감소하면 노동력이 감소하고 소비력이 떨어지면서 기업의 투자 이루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는 재정을 뿌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출산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며 "지금처럼 고용난이 심각하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무슨 재주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으로 재정을 어마어마하게 쏟고 있는데, 아동수당 지급은 출산 자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니다"라며 "노동시장의 문제들, 청년들이 진입하기 좋고,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은 저출산 정책에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선 결혼과 출산이 꺼려질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인구감소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사회를 안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전면적으로 펴야한다"고



강조했다.

◆구로구 첫째도 출산 장려금 20만원

구로구는 올해부터 첫째아이도 출산장려 지원금을 지급한다. 구로구는 그동안 지원금이 없던 첫째아에게도 출산장려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한다. 둘째아에게는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셋째아 60만원, 넷째 이상 200만원은 기존과 동일하다. 지원대상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구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다.

2008년 9월 출산양육지원금 조례 제정으로 2009년부터 둘째 2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이상 150만원을 지원하기 시작했던 구로구는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20년 현재 둘째 30만, 셋째 60만, 넷째 이상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첫째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례 개정은 지난 해 구로구의회 노경숙 의원이 발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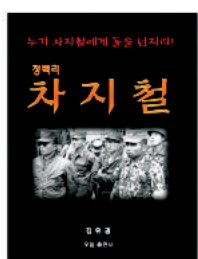
◆다양한 정책 '아이 키우기 좋은도시' 조성

구로구는 그동안 다양한 보육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선도해 왔다. 2010년 민선 5기 지방선거에서 당시로는 매우 낮설었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제1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됐던 이성 구청장은 취임 이후 0세아 의료비 지원(2011년), 국가필수예방접종비 전액 지원(2011년), 둘째아 양육수당 지원(2012년) 등을 정부보다 앞서 시행해 눈길을 끌었다.

2012년에는 어린이 통학차량 특별 보호 내용을 담은 '어린이 안전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다.

이외도 어린이나라 건국(2017), 국제 어린이영화제 시행(2013), 도서관 확대(2010년 40개→2020년 107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2010년 41개→2020년 94개), 사물인터넷 활용 어린이 안심케어서비스(2018) 등 수많은 정책을 펼쳐왔다.

이성 구청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은 구로구의 변함없는 우선 과제다"며 "앞으로도 부모님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민수 기자>



정백리 차지철

누가 차지철에게 돈을 던지랴!

김유권 지음
문집/사육신 양장/325쪽/값12,000원/발행일 2013년 3월 5일

“십시일반 이웃사랑으로 행복한 설 만들어요”

주민참여로 취약계층 지원물품 마련 ‘설맞이 기부나눔 사업’ 전개
2월 9일까지 동주민센터·푸드뱅크마켓서 식료품, 생필품 기부 받아

구로구가 ‘설맞이 기부나눔 사업’을 전개한다.

구는 “각계각층 주민들의 참여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물품을 마련하는 ‘설맞이 기부나눔 사업’을 전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설맞이 기부나눔 사업은 각 가정에서 보관 중인 식료품과 생필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사업이다. 주민들이 물품을 기부하면 구로구푸드뱅크마켓(구로동로50길 10)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

에게 전달한다.

기부 가능 물품은 쌀, 라면, 통조림 등 식료품과 비누, 세제, 휴지 등 생필품이다. 유통기한이 1개월 미만이거나 신선제품·유제품 등 식중독 우려가 있는 품목은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이는 내달 9일까지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로구푸드뱅크마켓을 방문하면 된다.

이동섭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접수된 물품은 홀몸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된다”며 “모두가 행복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구로구는 취약계층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구로구푸드뱅크마켓을 리모델링하고 지난 18일 재오픈했다.

문의) 구청 복지정책과 860-2299, 구로구푸드뱅크마켓 869-1378.

〈김유권 기자〉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구로구에 마스크 19만8천장 기부

취약계층 주민에 KF94 등 마스크 1억원 상당 후원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이 지난 13일 구로구 지역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 KF-94, 80 방역마스크 19만8000장(1억원 상당)을 기부했다.

이날 오후 구로구청 광장에서 이성 구청장과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김정안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갖고, 후원물품을 관내복지관,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코로나19 감염병 취약계층,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복지센터, 아동양육시설, 어르신 복지시설 등 배분 예정이다.

김정안 회장은 “최근 서울시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지켜보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동참하게 되었다”며, “코로나19에 특히 더 취약한 어려운 이웃들의 마스크 구매 부담을 덜고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사진 왼쪽이 희망을나누는사람들 김정안 회장, 오른쪽 이성 구청장.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성 구청장은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측에 감사드리며,

이번 후원이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참여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이 지난 18일 집무실에서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참여했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난 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자치분

권의 새로운 2.0 시대를 준비하는 각오와 변화를 위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참여형 캠페인이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시작한 이 챌린지는 참여자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대와 소망의 메시지를 개인 SNS에 남기고 다음 주자 세 명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주민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치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이 지난 18일 집무실에서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참여했다.

분권 2.0시대를 맞이하여 변화되는 제도들이 지방자치 안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구로구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참여 소감을 밝혔다.

앞서, 금천구의회 백승권 의장으로부터 챌린지 지명을 받은 박 의장은 지방분권 지원을 확산시킬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다음주자로 양천구의회 서병완 의장, 강서구의회 이의걸 의장, 도봉구의회 박진식 의장을 지명했다.

〈채홍길 기자〉

고척돔 홈구장 ‘키움 히어로즈’ 후원기 감독 선임

고척 스카이 돔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가 후원기 감독을 선임했다.

키움은 지난 21일 홍 코치를 새 감독으로 선임하고 계약기간 2년, 계약금 2억원, 연봉 2억원 등 총액 6억원에 계약했다고 밝혔다.



후원기 감독은 박찬호 황금세대로 유명한 ‘92학번’이다. 박찬호, 임선동, 조성민, 박재홍, 정민철, 차명주 등이 동기생이다. 박찬호, 손혁과는 공주고 동기다. 고려대를 졸업하고 한화 이글스(1996~98년)와 두산 베어스(99~2005년)를 거쳐 2007년 히어로즈의 모체인 현대 유니콘스에서 은퇴했다.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하는 유틸리티 플레이어로 통산 1043경기에 출전해 타율 0.245(2308타수 566안타) 48홈런 284타점을 기록했다.

〈채홍길 기자〉

2021년에도
새마을금고가 부자되는
큰 福을 기원합니다

새해에도 더 넉넉한 서비스로
고객님의 성공하는 금융플랜을 지원합니다.
새마을금고와 함께 큰 복 누리는 새해 되세요.

새마을금고 구로·금천구 이사장협의회 일동



‘능골산 유아숲체험원’ 3월 개장

고척동 산8번지 일대 1만㎡ 규모 조성 ... 각종 놀이, 체험시설 등 갖춰

개울산·잣절공원 체험원 함께 31일까지 숲해설 프로그램 참여기관 모집

구로구가 능골산 유아숲체험원을 오는 3월 개장한다.

구는 “자연을 접하기 어려운 도시 어린이들에게 숲속에서 뛰어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척동 산8번지 일대에 1만㎡ 규모의 ‘능골산 유아숲체험원’을 최근 준공하고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능골산 유아숲체험원에는 어린이들이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각종 놀이·체험시설이 마련됐다.

구로구는 기존 지형과 자연 소재를 최대한 활용해 통나무 기차놀이대, 통나무 허들, 오르기 시설, 던고 올라서기, 균형 잡고 걷기, 이야기터, 움집, 나뭇잎 테이블 등을 설치했다. 위험 상황을 대비한 대피소, 안전 휴게시설 등도 갖췄다.

구로구는 이에 앞서 2015년 개울산(개봉동 산53-3)에, 2018년에는 잣절공원(개봉동 45-2)에 유아숲체험원을 각각 1만1,000㎡ 규모로 개장한 바 있다.

개울산 유아숲체험원에는 나무 놀이터, 숲속교실, 모래놀이, 쉼터 등이 갖춰져 있다. 폐목재를 활용한 나무의자와 테이블, 흔들다리,



구로구가 자연을 접하기 어려운 도시 어린이들에게 숲속에서 뛰어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척동 산8번지 일대 1만㎡ 규모 ‘능골산 유아숲체험원’을 최근 준공하고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줄타기 시설과 대피소, 종합안내판, 게이트 등도 설치돼 있다.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위치한 잣절공원 유아숲체험원에는 나무공작마당, 트리하우스, 인디언집 등 테마별 놀이공간이 마련돼 있다. 줄타고 건너기, 밧줄 오르기 등 체험시설과 단체수업을 위한 학습공간, 휴게시설도 조성돼 있다.

한편 구로구는 유아숲체험원 신규 개장과 봄 개장을 앞두고 유아숲체험원 정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총 60개소를 31일까지 모집한다.

개울산, 잣절, 능골산 유아숲체험원 1곳당 20개소씩 배정되며, 이용인원은 1개 기관당 25명 이내다. 참여자들은 3월부터 12월까지 주중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아숲체험원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김수영 녹색도시과장은 “각 체험장에 전문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해 즐겁고 안전한 체험활동을 도울 예정이다”며 “숲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오감을 활용해 자연과 교감하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유희상의 열린 칼럼



작심삼일이라고 정초에 세운 계획을 2월까지 실행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다. 금주를 선언했는데 직장 상사가 한 잔 하자는 말을 거절 할 수가 없다. 낭비를 하지 않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 반값에 나온 노트북을 사고 만다.

작심(作心)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중국의 맹자다.

자기 담배를 피우게 되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알

코울중독증세로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술을 마실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1년 동안 맥주 한 모금 마시지 않

작심삼일(作心三日)㉠

글자 뜻 그대로 마음을 다잡는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고려시대부터 현대까지 ‘용두사미(龍頭蛇尾)’ 비슷한 말로 사용되고 있다. 유몽민의 글처럼 이루지도 못할 원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금연전문가나, 정신과 의사들의 말을 들어 보면 ‘금연’이나 ‘금주’는 말처럼 쉽지가 않다고 한다. 20년 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다가, 어느 날 갑

다가, 갑자기 소주 한 잔 마시면 알코올중독증세가 거칠게 되살아난다. 그래서 술이나 담배를 완전히 끊는다는 개념 보다는 안 마시고, 안 피운다는 생각을 해야 오래 간다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 ‘뱀새가 황새를 쫓아가다 보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다. 13cm 크기의 작은 새가 황새를 쫓아갈 수 없다는 말을 비유한 것이다. <본지 회장>

고대구로병원 김진원 교수팀

세계 첫 ‘스트레스-심혈관질환 연관성’ 규명

고대구로병원은 김진원 심혈관센터 교수팀이 세계 최초로 3차원 입체 분자영상을 통해 감정 스트레스와 심혈관질환 발생 간의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감정 스트레스는 심혈관질환의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스트레스 반응과 실제 심혈관질환 발생 사이의 상호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세한 기전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었다.

김진원 교수팀은 3차원 입체 분자영상을 통해 급성심근경색 환자에서 감정 반응을 관장하는 대뇌 영역인 편도체 활성화와 심장마비를 야기하는 동맥경화 염증활성도의 증가 사이에 밀접한 상호연관성이 존재함을 규명했다.

이번 연구에서 대뇌 감정활성도는 심근경색의 중증도가 높을수록 뚜렷하게 증가하고 심근경색이 회복됨에 따라 함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원 고대구로병원 심혈관센터 교수팀이 3차원 입체 분자영상을 통해 세계 최초로 감정 스트레스와 심혈관질환 발생 간의 상호연관성을 규명했다. <오른쪽부터 김진원 교수, 강동호 교수, 어재선 교수>

이번 연구논문의 제1저자인 강동호 교수는 “이번 연구는 오래전부터 관념적으로만 생각해 왔던 감정과 심장마비 발생간의 연관성에 대해 세계 최초로 3차원 입체 분자영상을 이용해 입증한 결과”라며 “임상적으로 감정 스트레스 요인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책임저자인 김진원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감정 스트레스와 심혈관질환 사이의 병태생리학적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데 첫 단추가 되는 핵심적인 단서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학술적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채홍길 기자>

제중요양병원, 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 1등급

구로5동 소재 제중요양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1등급에 선정됐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심사평가원에서는 매년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에게 합리적인 병원선택을 위한 정보제공을 위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이번 평가는 전국 1,239 요양병원에 대해 구조부문(의료 및 간호인력 적정 등)과 진료부문(환자의 신체기능, 인지기능 활성화) 등 총 18개의 평가지표로 산출됐다.

그 결과 1등급 기관은 총 164개로 상위 13% 이내이며 서울에서는 25개가 1등급을 받았다. 그 중 구로구에서는 7개 요양병원 중 2개 병원이 1등급이며 그 중에 한 곳이 제중요양병원이다.

제중요양병원은 2018년 개원 이



구로5동 소재 제중요양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적정성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1등급에 선정됐다.

후 최초로 실시한 적정성 평가에서 종합점수84.4점 1등급으로 종합점수 전체평균인 69.9점보다 14.5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봉 이사장은 “2018년 5월 개원해 이듬해인 2019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획득과 이번 적정성 평가 1등급 선정은 우리 병원 임직원 모두가 오로지 환자의

편익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또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1등급에 만족하지 않고 환자와 그 가족, 직원 그리고 지역사회가 좋아하는 병

원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중요양병원은 4,300평의 면적에 300병상을 갖춘 요양병원으로 재활의학과와 신경외과, 신장내과, 내과, 가정의학과, 그리고 한방과까지 6개 진료과목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관련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상세조사가 가능하다. <채홍길 기자>

‘설맞이 온라인 직거래장터’ 운영

자치단체 10곳 특산물 판매 ... 2월 5일까지 구청 홈페이지서 주문 가능
전통시장 4곳 29일부터 2월 10일 사이 경품추첨·할인행사 등 이벤트도

구로구가 설을 앞두고 온라인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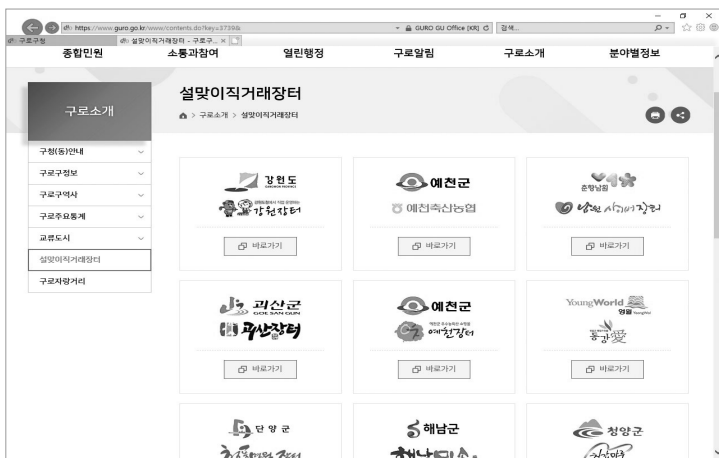
구는 “주민들에게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이 예상되는 특산물 생산 지역의 농가도 돕기 위해 ‘설맞이 온라인 직거래장터’를 마련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구로구는 이를 위해 구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직거래장터 코너를 마련했다.

이번 온라인 직거래장터에는 경북 예천군, 전북 남원시, 충북 괴산군, 강원 영월군, 충북 단양군, 전남 해남군 등 구로구 자매도시를 비롯해 총 10곳의 자치단체 농가들이 참여한다.

2월 5일까지 과일, 한우, 수산물, 잡곡류 등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며 강원도의 경우 10~2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한편 구로구 내 전통시장인 남구



구로구가 설을 앞두고 온라인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구는 주민들에게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이 예상되는 특산물 생산 지역의 농가도 돕기 위해 ‘설맞이 온라인 직거래장터’를 마련했다.

로시장(2.1~2.10), 고척근린시장(2.3~2.6), 구로시장(1.29~2.10), 가리봉시장(2.5~2.7)은 경품추첨, 할인행사 등 다양한 설 이벤트를 펼친다.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한다.

김한수 지역경제과장은 “온라

인 직거래장터와 전통시장 이벤트를 통해 질 좋고 저렴한 설맞이 장보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며 “주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구청 지역경제과 860-2853, 2860. <채홍길 기자>

남구로시장 고객지원센터 증축 사업 완료

기존 2층 건물 3층으로 확대 ... 고객편의공간, 다목적실 등 조성

구로구가 남구로시장 고객지원센터 증축 사업을 완료했다.

구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상인·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한 남구로시장 고객지원센터 증축 공사를 최근 마무리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구로동 741-44번지에 위치한 남구로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다. 지하층과 지상 1층은 화장실, 관리실 등으로, 지상 2층은 상인회 사무실로 활용돼 왔다.

구로구는 이번 증축 공사를 통해 기존 고객지원센터에 1개 층을 올려 지상 3층 건물로 확대했다. 늘어난 면적은 60.87㎡로, 주민들을 위한 편의공간과 상인들을 위한 다목적실이 새로 들어섰다.

공사에는 총 1억3,000만원(국·시·구비 포함)의 예산이 투입됐다. 고객지원센터는 남구로시장 상인회(회장 이희술)가 맡아 운영하



구로구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상인·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한 남구로시장 고객지원센터 증축 공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문을 열 계획이다.

한편 구로구는 지난해 구로시장 고객지원센터 개소와 아케이드 연장, 고척근린시장 전통시장 거리 조성하고 온라인 판매 서비스 개시 등 관내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했다.

구 관계자는 “상인과 이용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고척도서관장에 이선희 구로도서관장 4급 승진 부임

구로도서관장에 홍정숙씨

서울시교육청의 1월1일자 승진 전보 인사로 교육청 산하기관인

고척도서관장과 구로도서관장 이 새로 부임했다.

고척도서관(고척2동) 신임 관장으로 이선희 관장이 부임했다. 신

임 이 관장은 지난해 말까지 구로도서관 관장으로 근무하다 올해 4급으로 승진하면서 고척도서관 관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구로도서관(구로5동)은 홍정숙 관장이 부임했다. <채홍길 기자>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

2월 1일~15일 씨앗기·새싹기·실행기·특화사업 등 80개 모임 공모

구로구가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구는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도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에 전개한다”며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마련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 온라인 설명회는 27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구로구마을자치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된다. 주요 내용은 마을공동체 사업내용, 추진일정 안내, 활동영상, 온라인 질의응답 등이다. 관심 있는 주민은 누구나 시청 가능하다.

구로구는 사업설명회 후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사업 이해도, 참여 경력 등을 고려해 씨앗기, 새싹기, 실행기, 특화사업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8개 분야 80개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 참가자(모임)를 공모한다.

▲‘씨앗기’는 마을공동체 활동경험이 없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동단위 이웃만들기’와 ‘소모임형성’으로 구성된다.

▲‘새싹기’는 다양한 주제의 주민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

업’으로 마을공동체 경험이 있는 모임을 대상으로 한다.

▲‘실행기’는 골목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문화조성 등을 지원하는 ‘골목환경문화 공동체사업’과 시니어(60세 이상)와 1인 가구(20~40대) 맞춤형 ‘마을살이 사업’으로 구성된다.

▲‘특화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행복마을조성 사업’을, 마을활력소 주민 운영협의체는 ‘마을활력소 활성화 사업’을 펼친다.

지원 금액은 각 분야 단체(모임)별 100~450만원까지며, 씨앗기를 제외한 분야는 보조금의 5% 이상 자부담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모임은 단체소개서, 사업신청·제안서, 지방보조금지원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춰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maeul.org)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로구는 서면 심사, 사업선정위원회 심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4월 말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문의)구청 자치행정과 860-2208,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863-9580. <김유권 기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100명 모집

구로구가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오는 2월 5일까지 모집한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직접 참여시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대상은 공고일(2021.1.19) 기준으로 구로구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의 주민 또는 관내 기관·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구로구는 공개모집, 추천모집 등을 통해 100명 이내로 선발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이는 신청서를 작성해 구로구청 협치정책보좌관실

이나 각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우편, 팩스(860-2287), 구청 홈페이지, 이메일(ananke1006@guro.go.kr)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하다. 모집 결과는 2월 중순 개별 통보되며, 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위원들은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예산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예산 홍보, 분과별 제안사업 심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상정사업 선정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문의) 구청 기획예산과 860-2147. <한만수 기자>

구로소방서-고대구로병원 ‘응급환자 이송 강화’ 협력체계 구축

구로소방서(서장 김용근)는 지난 22일 회의실에서 고대구로병원(원장 한승규) 관계자와 함께 응급환자 이송 강화를 위한 협력관계 구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대구로병원은 서남권 권역내 최상위 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다. 최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코로나19 감염과 많은 응급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119구급대

와 응급의료기관 간 원활하고 체계적인 환자 인수인계를 위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용근 서장은 “현재 코로나19 환자 대응·응급환자 이송으로 인해 소방서와 병원 간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협력·유대를 강화해 신속하고 안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국가 위한 헌신에 감사, 마지막 가시는 길 함께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장례 지원사업 시행

독립·국가·참전·특수임무 유공자, 편의용품 27종·근조기 지원

구로구가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장례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구는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위해 2월부터 장례 편의용품과 장례서비스를 지원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했으며 장례식장이 수도권에 위치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증을 소유한 선순위 유족(1명)이다.

구로구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들에게 세면도구, 수건, 양말, 부의금 가방 등 총 27종의 장례 편의용품과 구로구 근조기를 지원한다.

상조 전문업체 소속 장례지도사



구로구가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위해 2월부터 장례 편의용품과 장례서비스를 지원한다. <사진은 장례편의용품과 근조기>

를 통한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장례지도사가 장례식장을 직접 방문해 유족들에게 장례절차에 대해 알려주고 근조기도 설치해준다.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구청 복지정책과(860-3068), 그 외 평일 야간과 공휴일은 종합상황실(860-2330)로 유선 연락하면 된다.

구로구의 국가보훈대상자 장례 지원서비스는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이동섭 복지정책과장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복지와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구로리어린이공원에 임시 선별진료소 추가 설치

이달 23일부터 2월 7일까지 주말 운영
신도림역·오류동역은 2월 14일까지 연장

구로구가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 1곳을 추가 운영한다.

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신도림역·오류동역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신속한 검사를 위해 구로리어린이공원(구로중앙로 13)에도 임시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로리어린이공원 임시 선별진료소는 이달 23일부터 2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총 6회 운영

되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검사가 진행된다.

주민 누구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휴대전화 번호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검사받을 수 있다.

한편 구로구는 신도림역·오류동역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을 2월 14일까지 연장한다. 운영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오후 4시, 주말은 오전 9시~오후 1시다. 평일은 2곳 모두, 토요일은 신도림역, 일요일은 오류동역 임시 선별진료소가 문을 연다. <김유권 기자>

구로동 상가주택서 불... ‘전동킥보드 배터리 과충전’ 추정



지난 19일 오후 3시 40분 구로동 4층짜리 상가주택 1층에서 불이나 공사 중이던 작업자 3명이 대피했고, 건물 1층 내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려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지난 19일 오후 3시 40분쯤 구로동의 한 4층짜리 상가주택 1층에서 불이나 공사 중이던 작업자 3명이 급히 대피했고, 건물 1층 내부 55m2가 불에 타거나 그을려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

해가 났다.

구로소방서는 건물 1층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킥보드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과충전되면서 불이 시작됐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한만수 기자>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주춤세

27일 현재 누적 확진자 총 788명... 사망자 8명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시한이 1월31일로 다가온 가운데 27일 현재 구로구 관내 확진자가 788명에 이르는 등 최근 주춤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6일 관내 확진자가 10명 추가로 발생했다. 이 중 8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다.

관내 774~783번 확진자는 모두 지난 25일 관내와 타 구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하고 26일 양성 판명됐다.

774번 확진자는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다. 775·776·781번 확진자는 직장 동료인 타 지역 확진자를 접촉했다. 777번 확진자는 또 다른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며, 778번 확진자는 타 구 확진자의 접촉자다.

779번 확진자는 증상발현에 따라 검사를 받았고, 780번 확진자는 선제검사를 받았으며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다. 782·783번 확진자는 직장 동료로 타 구 직장에서 확진자를 접촉했다.

764~768번 확진자는 모두 지난 22일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하고 23일 양성 판명됐다.

764번 확진자는 관내 760번 확진자(1.20)의 가족이다. 765번 확진자도 관내 762번 확진자(1.22)의 가족이다. 766번 확진자는 타



구로구 관내 확진자가 788명에 이르는 등 최근 주춤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구로보건소 선별진료소.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다.

767번 확진자는 관내 681번 확진자(1.6)의 가족으로 자가격리 해제 검사를 받고 양성 확진됐다.

현재 누적 확진자는 모두 788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현재 사망 8명, 681명이 완치 퇴원, 94명이 치료중이다. 자가격리자는 국내접촉자 217명, 해외입국자 226명 등 모두 443명이다.

한편 구로구민의 감염경로별 확진자를 보면 개봉동 미소들요양병원 관련 44명, 구로콜센터 관련 20명, 구로동 A아파트 관련 11명, 중국동포센터 관련 11명, 만민교회 10명,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9명, 강서구 개척교회 관련 6명, 관악구 리치웨이 관련 5명, 보성운수 관련 4명, 타시군구 접촉자 395명, 해외 입국 7명, 기타

261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시 전체 확진자는 27일 현재 모두 2만3천692명으로 사망자는 307명이다.

구청별로 보면 ▲강서구가 제일 많은 1,538명 ▲송파구가 1,330명 ▲관악구 1,154명 ▲강남구 1,129명 ▲노원구 1,004명으로 5개구가 1,000명을 넘었다. 이어 ▲동작구 991명 ▲성북구 990명 ▲중랑구 980명 ▲은평구 958명 ▲서초구 953명 ▲양천구 886명 ▲영등포구 857명 ▲동대문구 838명 ▲마포구 836명 ▲구로구 788명 ▲강동구 723명 ▲도봉구 719명 ▲서대문구 650명 ▲강북구 615명 ▲광진구 573명 ▲성동구 582명 ▲종로구 506명 ▲용산구 506명 ▲금천구 382명 ▲중구 356명을 기록하고 있다. <채홍길 기자>

8살 딸 흥기로 찢은 친엄마...14살 오빠가 몸던져 살렸다

친엄마가 8살 난 딸을 흥기로 찢는 사건이 발생했다. 몸을 던져 피해 아동을 살린 건 14살 난 오빠였다.

지난 21일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구로관내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44)는 전날 오후 6시30분쯤 주방에 있던 흥기로 친딸 B양(8)의 등을 찢었다.

B양을 지킨 것은 오빠 C군(14)이었다. C군은 엄마가 동생을 찢는 것을 목격하자마자 동생을 방으로 피신시켰다. A씨가 힘으로 문을 밀고 들어오려 하자 C군은 온몸으로 문을 지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범행 당시 친부는 집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등 쪽에 7cm가량의 자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세청에서 나를 도청하고 있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말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찰은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구로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 전까지 B양에 대한 학대 피해 신고가 접수된 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병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문예지 '한국문예' 2021년 봄호 나왔다

이화여대 동문 여류시인 6명 12편 등 실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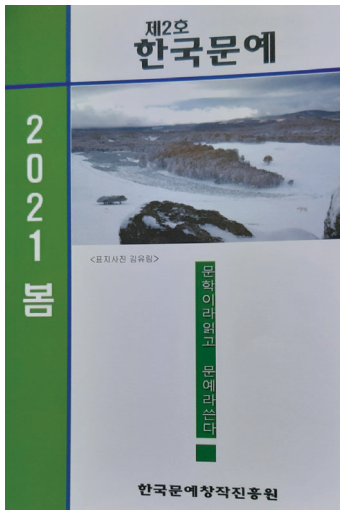
구로 관내 한국문예창작진흥원(원장 한만수)에서 발간하는 문예지 '한국문예' 2021년 봄호가 출간됐다.

창간호에 이어 김유권 편집위원은 '문예는 유희가 아니다'라는 문예칼럼을 통해 중국의 이태백 시인의 예를 들어서, 시를 쓰는 자세가 유희적이면 안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호에는 이화여자대학교 동문 시인 특집으로 안혜초 시인의 '목숨'을 비롯 6명의 여류시인이 각 2 편씩 12편을 발표했다.

이번호부터 기획한 문예기행 전에는 김유림 소설가이며 사진작가의 '눈으로 듣는 몽골 이야기'라는 주제로 '패상여행기'를 사진과 함께 실었다.

지방 동인문예단체 탐방기획으



로 '문향의 숲'에는 김천시 다음 문학회(회장 유언경)편을 실었다. 1999년 설립이 된 다음 문학회는 권숙월 시인의 지도로 15명의 시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시를 쓰고 합평을 하며 문예의 갈증을 해

소하는 모임이다.

단편 소설에는 청택회 회원으로 장편 소설 '8헤르'를 출간하고 세월호에 관한 시집 '17자시로 세월호를 품다'를 출간한 이창우 작가의 '게으른 자의 사랑' 등 5편이 실렸다.

장편 소설 연재로는 본지 발행인이며 주간인 한만수 작가의 '나쁜 여자' 1회가 실렸고, 수필은 장편소설 '블루마운틴'으로 법계 문학상을 수상한 강영애 소설가의 '웃는 부터들 서신마에삼존불과 나의 아버지'가 실렸다.

한편 '한국문예'는 신인상 제도를 운영 6월10일 마감으로 시, 소설, 수필, 희곡 장르의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당선된 작품의 작가들에게는 소정의 고료가 주어진다. <김유권 기자>

초대시

꽃

시인 임인진



옛 선비 붓통 안에 갇혔던
서슬 퍼린 말씀들이
이제 꽃으로 피어나

청람빛 당찬 봉오리
모필(毛筆)로 다 못한
진언(眞言)을 담고 있다

누군들 저 거침없는
직언(直言)의 붓 끝에
찔끔 가슴 찢리지 않겠나

옛 현철(賢哲)들 붓 끝에 쏟은
서릿발 같은 상소(上訴)와 차자(劄子)의
질책 앞에 죄진 자 벌벌 떨었겠다

저 붓대 꼭 움켜잡고
일필휘지(一筆揮之) 갈겨쓰면
청옥빛 하늘 흰 구름도 파르르 떨겠지

- 1935년 강원 평창 출생
- 1976년 <여성중앙> 동화 당선으로 데뷔
- 시선집 <친구여, 옥수수밭에 가보았는가> 동화집 <배꽃 마을 이야기> 동시 화집 <별 하나꽃핀 하나>
- 수상 <이화문학상> <한국아동문학상> <신사임당상> 외

국제펜클럽한국본부 이사장에 김용재 시인

부이사장엔 오경자 수필가 등 5명 당선

국제펜클럽(펜) 한국본부는 최근 임원 선거를 치러 제36대 이



사장으로 김용재(사진·77) 시인을 선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임기는 4년이다.

김 신임 이사장은 대전 출생으로 대전고와 충남대 영문과를 거쳐 동대학원에서 영문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4년 <시문학>

으로 등단 한 뒤 개인 시집과 시선집 12권과 영문시집 5권 등 40여권을 발간했다. 펜클럽한국본부 부이사장, 한국현대시인협회 명예 이사장 등을 지냈다.

부이사장으로는 김철교·심상옥 시인, 오경자 수필가, 최균희 아동문학가, 김유조 소설가가 당선됐다.

국제펜클럽의 펜(PEN)은 시인(Poet), 에세이스트(Essayist), 소설가(Novelist)의 영문 이니셜을 뜻한다. 1921년 영국 소설가인 도슨 스코트 여사의 주도로 런던에서 창

립됐다. 한국본부는 1954년 시인 변영로가 설립했다. <김유권 기자>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 개최

전국 중학교 2학년 이하 대상 ... 3월 26일까지 접수

(사)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가 '제9회 포스터그리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전국 중학교 2학년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3월 26일까지 접수한다.

참가자는 '우리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은을까요?'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아동학

대, 학교폭력, 환경오염 등으로 부터 안전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된다.

(사)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는 유치부, 초등부 저·고학년, 중등부 부문으로 나눠 대상, 파버카 스텔상, 우수상 등 총 48명의 입

상자를 선발한다.

수상 작품은 7월 개최되는 제9회 영화제 기간에 역대 수상작과 함께 전시될 예정이며 제9회 영화제 홍보물 디자인으로도 활용된다.

출품을 희망하는 어린이는 작품 원본, 신청서를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사무국으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화제 홈페이지(gukiff.kr) 참조.

<채홍길 기자>

빠른 정보는 로또와 같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에세이로 대학에 입학할 합니다.

등록번호 2019-002126

문예창작의 혁명!
문학이라 읽고 문예라 쓴다.

문예창작실기 지도사 자격증

문학(文學)은 학문이고
문예(文藝)는 예술이다.

문학적으로 쓰면 답습이고
문예적으로 쓰면 창작이다.

세계 최초!
문예적 글쓰기 작법 완성.

왕초보 기준으로 6개월에 장편소설 완성할 수 있다.

한국문예창작진흥원

02-2636-3765